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난이도 : 쉬웠던 시험이지만 중간중간 함정 선지들이 있습니다. 비문학과 문학을 푸는데 50분 걸렸습니다. 특히 기술지문은 공부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 지문입니다.

정답 풀이

■ 1번 문제

정답 : ①

해설 : 글의 서두에 책 선택의 배경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이런 점에서 나와 같은 독자도~~’

TIP) 기준을 명확히 잡고 접근하십시오. 문제의 요구는 ‘책 선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나머지 선지도 헛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선지들 중에도 지문에 등장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2번 문제

정답 : ③

해설 : 자신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책을 계획에 맞게 읽은 것뿐입니다.

■ 3번 문제

정답 : ⑤

해설 : <보기>에서 설정한 기준은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르시면 ⑤번 선지의 <자신의 관점>에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④은 정답과 반대되는 선지입니다.

■ 4번 문제

정답 : ②

해설 : 판매자가 광고를 얻으려는 효과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①번 선지의 경우 (가)에서 광고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 5번 문제

정답 : ③

해설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독점적 지위도 강화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독점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가능합니다.

■ 6번 문제

정답 : ②

해설 :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고, 이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경제의 선순환이란 문맥상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선순환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이해가능합니다.

■ 7번 문제

정답 : ①

해설 : ㉠의 경쟁 제한은 독점적 지위가 강화될 때 나타나는 효과이고 충성도가 높아지면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므로 충성도가 높아지면 경쟁 제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가능합니다. ㉡은 판매자 간의 경쟁으로 지문에 의하면 구매자가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는 말은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으로 이해가능하기에 구매자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판매자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것으로 이해가능합니다.

TIP) (가)와 (나)가 분리된 지문이었지만 문제를 풀기위해 각각의 지문에 제시된 개념을 사용해야했습니다. 2021 6평의 과거제, 공거제 지문에서도 보여주었던 (가), (나)가 연계되어 문항이 출제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보여준 문제입니다.

■ 8번 문제

정답 : ③

해설 : ‘갑’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이윤을 보게 되면 시장 내의 ‘갑’의 지위가 향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을’의 지위가 하락하는 것이기에 갑과 을의 경쟁은 촉진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쟁이 약화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9번 문제

정답 : ⑤

해설 : 해설 생략하겠습니다.

■ 10번 문제

정답 : ⑤

해설 :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지문에서 ‘무작위’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자유의지 논증은 ‘무작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11번 문제

정답 : ④

해설 : 자유의지가 있기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 ① 내가 그 선택의 주체일 것, ② 나의 선택은 선결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①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기에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 12번 문제

정답 : ⑤

해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라 사실 더 설명할 것은 없지만, 좀 더 부연설명하자면 일단 ㉠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해 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조건 2개 중 1개는 이미 만족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조건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일 것>을 만족하면 자유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뇌의 신경 사건으로 일어났든 될 뻔 했던 간에 일단 선택은 ‘갑’이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주체는 갑이고,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기에 2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선택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 13번 문제

정답 : ④

해설 : ㉠에 입각하는 것이므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해야 하는 입장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H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 이 부분을 지문의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의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중요했습니다. 지문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한 사람들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해도, 선택의 주체일 수 있기에 반자유의지의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14번 문제

정답 : ⑤

해설 :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감각 반응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15번 문제

정답 : ③

해설 :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TIP) ④번 선지가 함정 선지였습니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아니라 컴퓨터가 동기화하는 것이죠? 기술 지문에서 장치들의 역할은 끝까지 추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헛갈리지 않아요.

■ 16번 문제

정답 : ①

해설 : 키넥트 센서는 피사체의 입체 정보를 얻어,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결국 하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문에 의하면 ‘입체감’은 전달 받은 영상을 ‘사람의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입체감은 장치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에서 구현되는 것이죠.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 17번 문제

정답 : ①

해설 : 해설 생략하겠습니다.

■ 18번 문제

정답 : ④

해설 : 사공은 “부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다른 행책을 태울 수 없다”라고 발화한 적이 없습니다.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 19번 문제

정답 : ④

해설 : 해설 생략하겠습니다.

■ 20번 문제

정답 : ③

해설 : 해설 생각하겠습니다.

■ 21번 문제

정답 : ④

해설 : 배 비장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냐'고 물은 것은 서울로 가는 배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어떤 실제적 대안이 없는지를 물어본 발화임에 동시에 현 상황에 대한 좌절감정도를 드러내는 발화이지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 22번 문제

정답 : ①

해설 : '그의 머느리의 말에 의하면'이라는 구절에서 간접인용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번 문제

정답 : ②

해설 : 문맥 상 마을에 태풍이 휘몰아 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노인은 이전에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4번 문제

정답 : ⑤

해설 :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뜻배는 문맥 상 마을 사람들의 '고등어 배'와 연결지어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렇기에 뜻배 하나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죠 '혹시 고등어 배가 돌아왔나?' 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25번 문제

정답 : ①

해설 : 해설 생각하겠습니다.

■ 26번 문제

정답 : ②

해설 : 제시된 사건들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27번 문제

정답 : ④

해설 : 마을이 난장판 된 것은 자연재해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것을 나타낸 것이지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을 나타냈다고 보는 것은 과한 상상력의 몰입입니다.

■ 28번 문제

정답 : ②

해설 : 글의 화자가 '종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기준으로 잡고 선지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글의 화자는 '종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번 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은 '종가'를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번 선지의 풍자는 비판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정답이 될 선지는 ②번뿐입니다.

■ 29번 문제

정답 : ④

해설 :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약보를 그리지 않기에.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고 합니다. 심장의 박동 = 노래로 대입해 감상하시면 됩니다.

■ 30번 문제

정답 : ⑤

해설 : 영속성이란 개념은 영구적인 속성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에 의하면 시집에 약보를 이제 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는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영속성과는 반대되네요.

■ 31번 문제

정답 : ③

해설 :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는 말 속에 노래를 넣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 내 상처가 노래에 덧나기 때문에 이야기로 처방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노래에 덧나는 이유는 시에서 노래의 성격을 분리해서 낫다기 보다 오히려 분리하지 않아서 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32번 문제

정답 : ④

해설 : (B)에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화자의 처지는 같습니다.

■ 33번 문제

정답: ②

해설: 화자는 입을 원망하면서도 입을 만나고 싶지만, 입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잊기 위해 약기도 다뤄보고 하지만 그것마저 실패하고, 차라리 잠 들어 꿈에서 보려했다는 말을 통해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기에 꿈에서라도 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34번 문제

정답: ②

해설: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라는 구절은 약기를 다뤄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이것을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비약적인 발상입니다.